



만설(滿雪) 한라산 한파와 함께 한라산을 비롯한 중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15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바라 본 한라산이 새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메가시티 출범... 제주도 위상 '위태'

내달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초광역 협력 속도 특별자치도 권한 전국 확대로 차별적 지위 쇄퇴 강원·전북·제주 묶는 '강소권' 지리적 한계 봉착

내달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 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출범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 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에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치·행정수요에 대해 지역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대구·경북, 광주·전

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강원·전북의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부울경의 경우 다음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예정이다. '메가시티'에서 배제된 제주도는 강원도·전라북도과 함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정부차원의 전담 TF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대로그 기자 >>2면에 계속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최대 10만원... 도내 2만5000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유흥주점 등 유흥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PC방 등 16개 업종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지역에서는 2만5000곳이 방역물품 지원 대상인 것으로 추정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다. 각 영업장이 소재한 행정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접수를 하는 '10부제'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1차 대상에서 제외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2월 14일부터 그달 25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12
16일 <17시 기준> 누적 489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사적모임 6명·시간 제한 9시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에서 또 이르면 1월 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사적모임 인원 외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한다. 당초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이 6인으로 완화됐다. 미접종자는 기준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알림

제8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3.31(목) ~ 4.3(목)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한라일보는 전국 지역 대표신문사와 공동으로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의 판로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해 '제8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를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본 박람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정 농축수산물, 전통주, 발효식품, 기능성식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홍보관 외에도 지역별 문화 및 관광 등의 기타 콘텐츠,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박람회를 찾은 소비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품관련 바이어를 특별 초청해 각 지역의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판로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에게는 지역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신뢰를 갖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전국 농축수산물 식품관련 약 300개 업체가 참여하는 본 박람회의 참여 신청은 **1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라일보 홈페이지(<http://www.ihalla.com/popup/foodexpo.htm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1월 7일(금) ~ 1월 21일(금)

신청대상 도내 농·축·수산물 식품제조가공업체로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법인, 개인)

신청방법 [웹페이지\(http://www.ihalla.com/popup/foodexpo.html\)](http://www.ihalla.com/popup/foodexpo.html)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rhindus77@korea.kr 또는 shkim@hallaibo.co.kr) 신청서 송부

주최 한라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주관 (주)한국전시산업원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의 도 식품위생과 ☎ 064)710-3133 / 한라일보사 ☎ 064)750-2540

한라일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성장과 희망」을 제공하는 제주경제의 종합금융리더”

현재 시행중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안내



상품명	보증대상	보증한도	보증료
브릿지보증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	기존 보증서대출 잔액 범위 내	0.9% 이내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	20백만원 이내	0.4% 고정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	30백만원 이내	0.7% 고정
창업두드림 (Do Dream) 특별보증	창업 후 3년 이내의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50백만원 이내	0.7% 고정